

박상화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생식보건과 연구원

## “에이즈 예방엔 콘돔 사용이 제일”

콘돔은 피임을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수단이며 동시에 에이즈나 여러 가지 성병을 예방하는데도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콘돔은 아직도 음지에 있다. 콘돔 연구에 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박상화씨를 만났다.



젊은 사람들 중에 우연히 비네통의 충격적인 광고, 죽 나열된 콘돔을 본 것이 처음 콘돔이라는 걸 본 이가 많을 터이다. 콘돔은 왠지 흥청거리는 밤기리, 붉은 불빛 아래, 현란한 영상이 펼쳐진 야한 인터넷 화면을 떠올린다.

그러나 콘돔은 피임을 위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이고 나아가 성병과 에이즈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니 작고 하찮아 보이는 그것은 어쩌면 생명과 관계 깊다 하겠다. 그 중요한 콘돔이 왜 그들에 있을까?

### >> 중요한 만큼 당당하게

“콘돔을 접하기 쉽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 자체를 개방하기를 꺼리는 우리 풍토에서 그 일이 금선무죠.” 박상화씨는 공적인 장소라고는 화장실 자판기에서만 구할 수 있는 콘돔을 이제 공개해야 한다고 말한다.

병원 뒤편에 위치한 의학연구원은 햇살 받는 운동장을 앞에 두고 마치 학교 교사 같아 차분히 연구에 몰두하는 이들만 있는 듯 하다. 박상화 씨가 이곳에 있는 지는 벌써 20년 가까이 되어간다. 82년부터 수태조절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93년부터는 콘돔만을 연구해왔다. 유니너스와 같은 한국 콘돔회사와 산학 협동으로 즉 실험과 조사를 하면서 연구논문들을 발표하고 콘돔 사용을 위한 책자, 리플렛, 팸플렛들, 교육용 키트를 만들었다.

과거엔 품질 관리 기준이 피임 중심이었지만 점차 개성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만큼 콘돔도 다양해질 필요가 늘었다. 향, 디자인, 색상 등 천차만별이다. 외국에선 특별한 모양 등의 기능을 요구하기도 한다. 높은 피임효율을 전제로 함은 물론이다. 3만 배 확대하여 보아도 조직의 구멍이 보이지 않아 피임은 성병, 에이즈 예방 효과는 거의 100%에 가깝다.

현재는 폴리우레탄을 이용한 콘돔을 만들어 가는 추세인데 보존성이 과거보다 뛰어난 장점이 있다. 내구성, 보존성은 콘돔의 본래 기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성이 아직 폐쇄적이라는 점이 많은 부분에서 어렵다. "외국의 경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이즈를 측정하는 일도 기꺼이 나서서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쉽게 실험대상이 되려고 하지 않아서 270명 표본을 선정하는 일부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박상화 씨는 제조업체와 협력 연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불리적인 실험도 물론 하지만 주로 하는 연구는 사회적, 보건학적인 접근이다. 이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콘돔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 >> 연령과 수준에 맞는 구체적인 성교육이 절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거의 없는 것도 문제라 한다. 가장 활발한 시기에 제대로 된 성교육도 부족하고 따라서 사회적인 지식층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의 콘돔 사용률은 매우 낮다.

"남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보니 콘돔을 사용하는 비율이 훨씬 낮았습니다. 남자답지 못하게 보일까봐,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서, 불편해서, 값이 비싸다는 점등으로 부차적인 이유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체가 거의 전적으로 남성이고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남성이라는 점도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윤리적인 접근을 병행하여 연령에 맞는 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국에선 콘돔 광고도 자연스럽다. 아직 우리에게선 문화적인 충격이 크다.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지만 꾸준한 노력도 필요한 일이다.

성인에게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별 장애가 아니다. 약국, 대형 슈퍼마켓, 통신판매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미혼 젊은이들, 독신자들이 콘돔을 구하기 쉽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피임과 성병,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현재 대학 캠퍼스 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하여 설문 조사를 했다. 반대 28퍼센트, 나머지는 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차차 공개적인 곳에서 콘돔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콘돔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 되리라 기대한다.

그의 앞으로의 계획은 콘돔에 관한 서적을 내는 것이다. 콘돔의 역사부터 전반적인 모든 지식을 망라할 예정이다.

김소라 래드리본 기자

"남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보니 콘돔을 사용하는 비율이 훨씬 낮았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남자답지 못하게 보일까봐,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서, 불편해서, 값이 비싸다는 점등으로 부차적인 이유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박상화씨의 논문들과 성교육을 위한 키트

